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람들(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인 주문기계를 설치하고 알바생들을 줄였다.
- 최저임금 인상은 '을 대을'의 갈등이 되어 버렸다.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표방해놓고 사실상은 다른 그룹이 수혜를 보는 구조라면, 그 왜곡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 어려운 이들을 배려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시장 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 한다는 게 최저임금 정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 활동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각 가정에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층 간의 일치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각 각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의 수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가정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소득 없는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이 빈곤 문제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라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누구는 받고 ,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떨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 안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 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 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